

“다매체 시대, 언론중재위 지위와 여건 격상되어야” “인터넷신문 기자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”

—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—



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권성 위원장

● 위원회는 10월 21일 국회에서 2013년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았다. 이날 국정감사는 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언론진흥재단, 대한체육회, 국민체육진흥공단, 국민생활체육회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. 여야 의원들은 ‘다매체 시대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직 및 예산확대 필요성’, ‘인터넷신문 기자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’, ‘오보로 인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조정’ 등을 주문했다.

“ADR 선도 기구인 위원회의 제도와 경험을 접할 수있는 좋은 기회”

—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 워크숍 개최 —

● 위원회는 10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.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및 심사관 12명과 권성 위원장 및 박현재, 권일 위원 그리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.

워크숍에 앞서 가진 간담에서 정해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은 “언론중재위원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ADR기구로 자리잡았다. 이번 워크숍은 위원회 제도와 경험 등을 상세히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”라고 말했다.



위원회를 찾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과 간담을 나누는 권성 위원장



위원회를 찾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및 심사관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.

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“올해 초 ADR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조정중재아카데미를 신설했다”며 “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상임조정위원과 심사관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”고 말했다. 간담 후 위원회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‘언론중재제도 및 처리절차’를 설명하고 ‘설득으로 본 조정의 방법’을 주제로 강의를 했으며, 이후 토론하는 시간을 갖졌다.